

코로나19 위기

“공익을 위해 수익 창출은 0원”, 코로나 맵 제작자 이동훈

누적 조회 수 4,000만 회 육박  
지자체 통계로 동선 표시  
공포로 인한 2차 피해 막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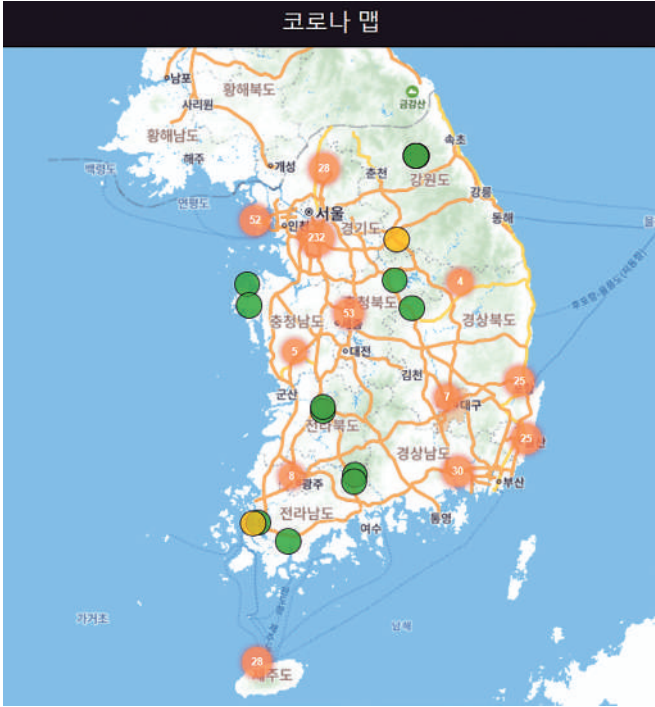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끝까지 운영하겠다는 다짐에는 변함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국제캠퍼스 산업경영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동훈(산업경영공학 2014) 씨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 맵’의 배포를 시작했다. 당시 이 씨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맵의 제작 계기와 운영 방식 등을 얘기했다. 또 “많은 관심을 받아 열떨떨하다”는 소회도 밝혔다.

이후 약 2달이 지난 지금 어느덧 ‘코로나 맵’은 누적 조회 수 4,000만 회, 하루 평균 조회 수 100만 회에 육박하는 서비스로 발돋움했다. 제작자인 이 씨는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인터뷰, 방송에도 출연하며 ‘코로나 맵’ 개발자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초창기와 비교하면 ‘코로나 맵’의 기능과 운영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운영체제가 바뀐 것은 가장 큰 변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인해 혼자 운영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 대학생 연합동아리 ‘SOPT’에서 20명의 자원자가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나서준 것이다. 이 씨는 “따로 임금을 드리지 않는데도 불



구하고 각자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도와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보 취합 및 업데이트 방식도 바뀌었다. 이 씨는 “초기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지만 지자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론 질본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각 지자체의 확진자 통계를 매일 비교한 이후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확진자 이동 경로를 파악해 좌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이용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체계적인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에도 성공했다. 초기 한 명의 이동 경로를 업데이트하는 데 약 10분이 걸렸던 것을 현재는 30초가량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을뿐더러, 확진자의 수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운영에 예외를 두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지 9일이 지난 정보는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씨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절대 방문하면 안 되겠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해도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거치고 이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안전하다”며 “정보 삭제 조치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코로나 맵’을 통해 얻는 수익은 ‘0’ 원이다. 그는 “당초 공익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지 앞으로 수익 창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 “국내외에서 ‘코로나 맵’ 운영을 통한 경험과 기반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아낌없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공익 실현의 의지를 밝혔다.

이 씨는 많은 매체와의 취재, 방송이나 촬영을 통해 받은 출연료를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전액 기부한 상태다. 그는 “여러 기업에서 투자 제의나 스카우트 제의 등이 들어오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다”며 “수익은 없어도 ‘코로나 맵’을 응원해주는 분들을 원동력 삼아 전력을 다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많은 개선을 거쳤음에도 우려가 되는 지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개발자 자신의 건강과 정보 오류에 관한 문제였다.

이 씨는 “초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압박에 밤잠도 자주 설치고 건강도 나빠졌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신경을 쏟다 보니 피로감도 자주 느꼈다. 다행히 이 씨를 돕겠다고 연락을 준 자원자들이 있었고, 이제는 하루에 두 번 업데이트 주기를 정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려 노력 중이다.

‘정보 전달의 오류’는 이 씨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다. 지자체에서 이미 공지한 바 있는 정보를 재수정하는 경우 ‘코로나 맵’이 의도치 않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다. 이 씨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수정하고, 메일이 오면 즉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응원해 준 모든 이들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 맵’이 널리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을 여기저기 공유해 준 경희대 학우들 덕분”이라며 “확진자가 0명이 될 때까지 사이트 운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금, 여러 기관, 지자체 등 많은 사람들이 각자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안함 속에서도 다들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자가 체험한 비대면 2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강의에 접속하세요

3월 16일, 오전 일찍부터 휴대전화는 요란스럽게 짧은 진동을 단속적으로 되풀이했다. 메신저를 확인하니 진원지는 오랫동안 조용하던 과 동기들의 단체 채팅방이었다. 벌써 소위 ‘화석’ 소리를 듣는 학년이 돼 이제는 조금씩 학교를 떠날 채비를 해 나가는 중인 그들이 잠깐이나마 새내기 때로 돌아가길라도 한 듯 떠들썩해진 이유는 바로 비대면 강의였다. 개강은 했지만 강의실은 비어있는 기묘한 3월이었다. 모든 수업을 인터넷으로 듣게 된 상황이니 입학이 언제였냐는 상관없이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수강 시스템 사용방법을 묻고 답하고, 자신이 듣는 수업에서 일어난 해프닝과 어색해하는 교수님 모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에서는 묘한 들뜸마저 느껴졌다.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들이 마찬가지로 상황인 만큼 인터넷에는 비대면 강의와 관련된 황당함과 웃음을 자아내는 온갖 사례들이 쏟아졌

다. 마치 온 나라의 대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이 된 듯한 모습이었다. 방안에 앉아 난생 처음 사용해보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사용방법을 파악하느라 잠시 심란하던 와중에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나만 해매는 중은 아닌 모양이다’라는 소소하나마 위쾌한 공감을 선물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도 수업마다 출석이나 과제 제출 방법이 제각각이라 공지 메일을 놓치거나 무시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비대면 강의의 계획이 다시 연장된 만큼, 아직이라면 앞으로 한동안은 메일 도착을 알리는 푸시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출입을 삼가주세요

학보사 기자들은 보통 남들보다 조금 빠른 개강을 맞는다. 개강일에 맞춰 발행하는 개강호 제작을 위해서다. 그러나 학교의 개강 연기, 2주간의 비대면 방식 강의 진행 결정에 따라 독자들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신문의 개강호 역시 두 차례 발행 계획이 연기됐다.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올 날은 또 한 번 미뤄졌지만 우리신문은 개강호 발행을 결정했다. 기자들은 여전히 요원한 낮익은 일상의 귀환을 기다리며 그 작은 조각이나마 제 자리에 돌려놓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

이번에도 보통보다 조금 일찍 돌아온 캠퍼스는 작년 이맘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대부분 건물은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과 청운관 입구에는 열 감지기가 설치돼 있고 봄에 들뜬 학생들이 자리를 깔고 웃고 먹고 노래 부르던 잔디밭은 내려앉은 햇살만 가득하다. 배달 오토바이는 정문을 넘지 못하고 꽃 사진을 찍던 노부부는 ‘외부인은 출입을 삼가달라’는 당부에 절음을 돌렸다.

당신과 나의 거리

개강호 제작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 날이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에 따르느라 오래 간만의 외출이었다.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하면 약속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 마침 길가에 서 있던 택시 문을 열었다. 차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사는 손사래를 치며 다가왔다. 손으로 입가를 가리키는 그의 모습을 보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났다. 순간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솟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온 길을 달려 돌아갔다.

출석 땀글과 채팅창, 강의 자료와 이메일을 통해 만나는 교수와 학생들, 비어버린 캠퍼스, 공공장소에서는 빠짐없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만들어낸 풍경이다. 이번 코로나 대유행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인류가 살아가는 환경,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와 고도로 연결된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실감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것은 비단 인간의 건강만이 아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인 상호 간의 신뢰를 공격하고 있다. 편견에 사로잡혀 어제까지 내 옆에서 살아가던 타인을 바이러스로 몰아붙이며 무무형의 공격을 가하거나 근시안적인 이기심과 안일함에 갇혀 방역 체계에 구멍

을 내는 행동이 사회적 신뢰를 흔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우리에게 물리적 거리를 넓힐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방역을 위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당신과 나는 어깨를 맞대고 함께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다. 우리의 낮익은 일상, 웃고, 화내고, 싸우고, 서로 도우며 부대끼고 살아가는 일상을 되찾으려면 지금은 마음을 합쳐 서로 멀어져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 지면 위에 대학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말을 제법 여러 번 되풀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에야 대학은 단순한 건물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낀다.

아직은 빈칸이 더 많은, 빗장이 질려진 캠퍼스에 조금 먼저 도착해 여러분을 기다리며 안부를 묻는다. 한 분도 빠짐없이 활짝 열린 문을 넘어 이곳에 모일 날을 고대한다.